

존경하는 김풍운목사님과 벅스카운티 성도여러분께 2014년 7월말 선교소식을 드립니다.

Angaika! 와, 그네다! 자기들의 교실 앞쪽에 새롭게 세워진 그네를 보고 아이들이 달려가더니 순식간에 그네를 타기 시작합니다. 아직 페인트가 마르지 않아서 온몸이 얼룩덜룩해가는 것도 모르고 그네에 타는 재미에 빠져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 예수님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들로 잘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초에 단기팀의 방문으로 그동안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아이들의 그네와 철봉, 고등학생을 위한 축구골대,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축구골대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팀멤버들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쓰라리고 아프지만 내색을 하지않고 열심히 땅을 팅습니다. 땅을 파고 시멘트를 섞고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에서,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맛사이 찬양을 함께 하는 모습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 모습에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받고 받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더 없이 보기 좋았습니다. 선교센타안의 초등학교학생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오래 기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아침예배와 분반성경공부모습



맛사이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세집의 개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온 집안의 이사는 5월말이었지만 5개월전부터 일주일에 3-4일을 맛사이에서 건축을 하면서 보냈기에 그런것 같습니다. 집안에 전기는 들어왔지만 화장실과 물이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나이로비에서 소말리/신대원 강의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맛사이에 와서 사역을 하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맛사이에 거주하면서 나이로비에서 강의 사역을 하게됩니다. 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사역의 포커스에 큰 영향을 주는것 같습니다. 계속해 왔던 사역들이지만 맛사이사역의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삶의 활력소로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저희가 맛사이땅에서 살면서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이들에게 더 많이 넘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앞의 그네, Before / After

나이로비의 신대원 강의 사역은 5월말에 2학기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기말에 학생들이 강의평가서를 무명으로 제출합니다. 매년 있는 평가지만 이번에는 이것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와 간증에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평가서에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하였기에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쉼표를



이미애선교사가
친구들에게
집앞에서 빵과 음료대접

찍어가는 휴식의 필요도 느낍니다. 매학기마다 되풀이 되는 강의가 아니라, 진실된 제자의 양육으로, 케냐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와 정성을 다하는 가르침을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케냐-소말리의 분쟁이 종교전쟁의 모습이 되려고합니다. 케냐군인들이 소말리아에서 모슬렘 반정부군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케냐안에서의 테러가 지난 5월과 6월에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피의 5월”이라고 부를수 있을 정도로

테러가 일어나자 영국에서는 관광객 700 여명을 대피시키고, 미국과 많은 서방국가가 몸바사지역과 나이로비 일부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제한을 시작하였습니다. 테러를 자행할때 먼저 종교를 물어보고나서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자리에서 머리에 총을 쏘서 죽이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무차별로 살상하여 사망자가 100 여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케냐가 세계에서 9 번째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유를 사러 슈퍼마켓에 가거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도 몸수색을 해야 들어 갈수 있는 긴장감속에서 살아가기에 삶 자체가 피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행히 아직은 맞사이에는 테러의 위험은 없지만 나이로비사역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긴장감에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의 쉼을 위해서 한국에서 9 월달까지 지내려고 합니다. 건강진단과 그에 필요한 몇가지 서류등을 갖추고 테러에도 굴하지 않는 영적건강의 충만함과 육체적인 휴식으로 큰 힘을 얻어서, 맞사이에서 나이로비에서 사역을 계속해 나갈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연락처는 010-9914-7206 입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이되면 지면으로 못다한 하나님역사하신 은혜의 선교이야기를 나눌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미흡한 저희들의 선교를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소식을 전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김명수, 이미애선교사올림

[중보 기도부탁드립니다]

* 케냐-소말리아와의 전쟁으로 케냐안에서 모슬렘들의 테러가 구체적으로 또한 저희 주변에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현지인들과 저희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 나이로비와 맞사이의 강의 사역, 선교센터안의 학교사역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알아가게 하는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맞사이 지역 선교관과 학교, 교회에서 사용할 우물과 집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 맞사이 지역에 있는 교회중 건물이 없는 5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그리고 소말리 통독기 제작에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 가족 모두의 건강과, 학업과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함 인도함과 동행이 있도록,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팀원들과 식사하는 아이들

연락처: Stephen Kim, P.O. Box 1012-00621 Village Market, Nairobi, Kenya
stephenkim63@hotmail.com (hp) 케냐 +254-715-176 551, +254-735-262 760
 한국후원: 제일은행, 이미애 276-20-091461, 미국: Wells Fargo Bank, TX (Bank #: 112 000 066)
 Stephen M. Kim, Acc # 731 206 8450, 케냐후원 방법은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